



보도시점 2024.3.6.(수요일)

배포

2024.3.6.(수요일)

재외동포청, 해외위난 피해 동포 보듬는다

- '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' 첫 제정...생필품 등 지원

- 해외에서 재난, 전쟁, 폭동 등 위난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들이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.
- 재외동포청(청장 이기철)은 해외위난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세부 절차를 규정한 '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'이 `24.3.6. 제정됐다고 밝혔다.
 - 이 지침에 따르면, 해외위난이 발생한 국가의 재외동포 단체는 재외동포청에 피해 극복에 필요한 생필품, 구호물품, 의약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-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그동안 '재외보듬기 정책'의 일환으로 해외위난으로 피해를 입고도 적절한 구호를 받지 못한 동포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.
 -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 예산에 해외위난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에 대한 생필품 지원금(4천만원)을 책정했고, 신속한 지원을 위해 같은 해 7월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(MOU)도 체결했다.
- 이기철 청장은 “해외에서 위난으로 피해를 입고도 구제받지 못했던 동포들에게 신속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 제도를 최초로 마련한 것”이라면서 “앞으로도 소외받고 고통받는 동포들을 꼼꼼히 챙기고 따뜻하게 보듬는 재외동포의 울타리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| 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|-----|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재외동포청 | 책임자 | 과장 | 곽삼주 | 032-585-3154 |
| | 재외동포정책과 | 담당자 | 외무행정관 | 박지현 | 032-585-3162 |